

고창군-정치권 정책협의회

내년도 예산확보·현안사업 해결 공동 협력 의견 모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정치권과 공조와 협력을 통해 내년도 예산확보와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정책협의회는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군의장, 유성엽 국회의원, 이호근·장명식 도의원, 군의원 등 지역 정치권인사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창군은 그동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박우정 군수와 군 공직자들이 중앙부처와 정치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내년도 신규사업 46건에 국비 1266억원이 부처에 반영되어 현재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 있다.

군은 요구한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를 도모하고 중점관리 대상 목록 21개사업(1,301억원)을 선정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 지역구 국회의원의 원인 유성엽 의원과 도의원, 군의원 등 참석자들에게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기재부등의 입장과 쟁점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논리 등을 함께 토의했다.

유성엽 의원은 국회활동 경험을 살려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고창군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우정 군수는 "지역 발전의 큰 뜻 아래 고창군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 가장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고창을 만들어가자"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창군 발전을 이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앞으로도 군정 현안 등을 중앙정치권과 군의원이 함께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운암면 옥정호 순환도로 붉은 장미 만개 관광객 '유혹'

넝쿨장미 1만 2천여본 식재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순환도로 및 호수공원 일원에 열렬한 사랑을 상징하는 붉은 장미가 만개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운암면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지난 2005년 옥정호 순환도로 절개지 부분에 넝쿨장미 1만 2천여본을 식재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운암면 소재지 이주 완료 후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호수공원 일원 도로사면 약 1.2km구간에 1천 5백주를 식재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볼거리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바라건 면장은 "옥정호 주변도로는 풍경이 아름다워 해마다 사진작가, 가족 및 연인들의 나들이 장소로 인기

가 높다"며, "앞으로 장미꽃 관리에 만전을 기해 '옥정호 장미도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황숙주 순창군수, 지역발전비전 3대 키워드 제시

6월 월례조회에서... 관광·건강·소스, 전략산업 육성 강조

"관광·건강·소스 3대 키워드를 잘 이해하고 순창발전에 힘을 모읍시다" 황숙주 군수가 2일 향토관에서 열린 6월 월례조회에서 순창 발전비전을 집약한 3대 키워드를 제시하며 직원들이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군수는 "지난 5월에 개최한 2016 순창세계소스박람회 가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는 무리라는 주위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11만명의 방문객이 방문하며 대성공을 거뒀다"며 "순창은 앞으로 소스산업을 군의 전략산업으로 성장시켜 100

년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료치유를 중심으로 한 건강산업과 섬진강 강천산을 중심으로 6차 산업업 결합된 관광 산업을 군의 3대 성장 키워드로 인식하고 군정의 힘을 모아 줄 것을 이야기 했다.

황군수는 "지난달에는 롯데백화점에 순창의 농산물을 특별 판매하는 행사를 열어 도시 소비자들에게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고 다양한 스포츠 행사도 유치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들었다"고 말하며 "11개

읍면 농촌 현장을 방문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같이 논의 하는 시간도 갖는 등 다양한 소통의 장도 마련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지난날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올해 남은기간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자"며 "특히 내년 100대 사업 5천억 예산 확보를 목표로 군민 행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하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6월 월례조회에는 분청은 물론 읍면 직원들까지 500여명이 참석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클린순창 청렴 콘서트'

500여 공직자 참여·부정부패방지 다짐

순창군이 '클린순창 청렴콘서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실시해 공직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에 나섰다.

군은 2일 향토회관에서 500여 공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순창군 공직자 청렴 다짐을 위한 '클린순창 청렴콘서트'를 진행했다.

교육을 마친 군 공무원들은 "기존 교육보다 내실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연극 공연으로 청렴에 대해 마음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청렴 분위기를 확산시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에 실시한 청렴콘서트는 기존의 외부초청 강사의 이론 강의 형식을 탈피하고 연극형식을 도입한 새로운 방식의 청렴교육이다.

불인도를 높여 공무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 장점이 돋보인 교육이었다는 평이다.

이날 교육은 인기리에 방영됐던 케이블드라마 '미생'을 패러디한 '꽃보다 청렴'이라는 제목으로 순창군청에 입사한 신규직원이 겪게 되는 부당청탁, 부패행위, 공직생활 중 쉽게 만나고 싶을 수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등을 현실감 있게 표현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공직자의 청렴과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이번 청렴연극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공직기강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 솔선수범해 깨끗한 군정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해 국민권의 위원회에서 주관한 청렴도 평가에서 82개 군부 자치단체에서 종합 4위를 차지했다.

전북에서는 1위의 성적이다.

군은 올해도 공직자의 청렴도 최상위를 목표로 설정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관광지 관문 설치사업'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남원시가 남원관광지를 상징하는 관문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2일 회의실에서 이화주 남원시장을 비롯한 건축, 디자인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관광지 관문 설치사업'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관광지 관문 설치사업'은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춘향테마파크 등의 입구에 관광지를 부각하고 홍보효과를 제고하는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첫 이미지부터 관광 명소화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관문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안전이 나왔으며 특히 관문의 상징성의 인공 사람의 광장과

꽃동산으로 연결, 조망과 쉼터 제공 등 관문 활용방안 등도 논의 했다.

관문의 형태는 남원만의 전통과 문화를 접목하여 남원 고유 이미지를 한눈에 엿볼 수 있는 독창적인 면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의 랜드마크 자리매김하고 관광지 관문은 전통문화도시 남원으로 통하는 문으로 조성하겠다는 장기적인 안목도 제시 됐다.

이화주 남원시장은 "한국의 대표 누각 관원투와 함께 남원의 전통 건축 문화와 최신의 건축자산을 담은 하나의 소중한 건축자산으로 남원관광지 관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국립의료원

임실군, 통합건강증진사업 '호응'

임실군이 결혼이주여성 증가 추세에 맞춰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실시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인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수준 향상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매주 화요일 총 19회에 걸쳐 보건의료원과 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기초조사 및 건강조사, 보건교육, 건강체조, 건강식 만들기 실습, 응급처치 교육, 좋은 부모·부부 교육 등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건의료원 내·외의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돼 매회 30여명이 참가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 관리에 대한 동기 부여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640-3152~4) 또는 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643-1837)로 연락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여협, 학교폭력 예방교육

순창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인자)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실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 폭력없는 안전한 순창만들기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전라북도 여성가족발전기금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실시하는 교육이다.

2일 부터 순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 까지 관내 18개 학교에서 30회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교육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전문강사를 초빙해 왜곡된 성 인식 및 성폭력·학교폭력의 개념과 발생원인, 그에 따른 대처방안 등 올바른 성 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교육은 학교마다 전체학생을 모아놓고 하는 집합교육에서 탈피해 교실로 찾아가며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어 실시하는 교육을 실시해 또래 간에 폭력방지는 물론 인식 개선을 통해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여성단체협의회 김인자 회장은 "앞으로 또래와 함께 성폭력·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폭력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군민 각자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관심으로 폭력 없는 안전한 순창만들기에 동참 해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통, 사업용자동차 범규위반 단속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는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홍보 강화로 사업용 자동차 업계의 자율적인 위험운전 관행 개선 및 안전의식 고취 유도를 하고자 사업용자동차협회와 협조를 통해 소속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교육과 교통관리계에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며, 특히 수확여행철 학생 수송 전세버스업체의 대열운행방지를 위해 '교통안전 매뉴얼'을 활용하여, 운행 출발 전 음주검사와 더불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신호위반·끼어들기·포리불기·난폭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박훈기 서장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과 더불어 범규준수와 안전운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안전한 남원을 만들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